

# ‘선과 악’ 생각 끊어지면 삼계 벗어나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구하는 것을 일러 ‘가리왕(歌利王)이 사냥놀이를 좋아함’이라 한다.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忍辱仙人)이며,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을 곧 불도(佛道)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8)



범이사 주지

〈금강경〉 ‘이상적멸본’에 가리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도 여래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설하니,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옛날 가리왕이 나의 몸을 베고 끊었을 때, 나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느니라. 내가 마디마디 사지를 끊길 그 때, 아상이나 인상·중생상·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나.”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숲속에서 인욕선인이 되어 수도할 때, 성질이 교만하고 포악한 가리왕이 사냥을 나갔다. 왕이 잠든 사이, 산책하던 궁녀들이 나무 아래 앉은 선인의 청정한 모습에 감복해 법을 청해 들었다. 잠이 깨어 그 모습을 목격한 가리왕은 질투를 일으켜, 선인의 인욕행을 시험하고 나섰다. 왕은 선인의 귀와 코를 자르고, 마침내 팔다리까지 잘랐다. 그러나 선인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난 용신이 왕을 해치려는 것을 말렸다. 이 일을 인연으로 왕의 탐진지 삼독을 끊어주는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것이다. 왕은 갇히니 뒤우치고 궁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밖의 대상에 반연하여 일어나 집착하면, 이는 사냥놀이를 좋아하는 가리왕과 같은 꼴이 된다. 반대로 마음을 쉬고 안으로 본래 자리에 가만히 계합하면, 인욕하는 선인이 된다. 마음이 밖으로 나서면 의도가 되어 포악해지고, 안으로 인욕하면 정진하여 자비로운 선인이 된다. 결국 한 마음이 일어나 밖으로 떠돌면 집을 나가 고생하는 것과 같고, 안으로 돌아와 본심과 하나가 되면 자기 집에서 편안히 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진정한 수행이란 상(相)이 떨어진 ‘무념(無念)의 염(念)’을 일컫는다. 육조스님은 ‘무념을 종(宗)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일으킨 적이 없는 성품을 스스로 요달하고, 저절로 무념이 되는 인연에 나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무념의 염’이다. 이것은 무념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 본래무념과 계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경전을 제일로 치신 것이다. 그런 공부 인연에 나아가면 것이 진정한 참모습이다. 이것을 ‘무수(無修)의 수(修)’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아직 공부를 지어가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부처님 입장에서 흔적까지도 다 지워버린다. 자성을 요달하고 확철대오 했을 때, 비로소 정진다운 정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정진하고 싶다고 해서 정진하는 게 아니다. 정진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삿되고, 어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다시 찾을 바가 없다.

생멸(生滅)이 적멸(寂滅)하면,

적멸이 위락(爲樂)이 된다.

공부가 되면

무심을 짓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심이 되는 것이다.

방편으로 육계·색계·무색계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

빨리 벗어나라 했지만

사실 삼계가 그대로 범계라

따로 벗어나 삼계란 본래 없다.

리석어지기 쉽다. 그래서 눈을 뗀다 하더라도, 공부한 사람들끼리 서로 비취 탁마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분이다.

### 14. 무심행

배후가 물었다.  
“만약 무심을 행(行)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무심이 바로 이 도를 행함이거늘,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

무심이 바로 도를 행함이라 할 때, 이 무심은 마음을 없애서 만드는 무심이 아니다. 마음은 있다 없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 무심이란 본래 무심으로 될 하고 안 하는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본래 무심은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없는 무소득이다.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모든 헛된 노력을 여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다.

무심이면 그대로 온전한 것인데, 거기서 무심을 행해야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렇게 생각으로 지은 무심이 오히려 경계가 된다. 무심이라는 생각조차 없어야, 비로소 무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다시

찾을 바가 없다.”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각하면 저절로 사라진다. 생멸(生滅)이 적멸(寂滅)하면, 적멸이 위락(爲樂)이 된다. 공부가 되면, 무심을 짓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심이 되는 것이다. 한 생각 돌이켜 마음자리에 계합하면, 그것으로 안상하고 절로 일이 없어진다. 무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심해져서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것이 바른 공부다.

### 15. 출삼계

배후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삼계(三界)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방편으로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서 빨리 벗어나라고 했지만, 사실 삼계가 그대로 범계라서 따로 벗어나 삼계란 본래 없다.

황벽스님이 말했다.  
“선과 악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삼계를 벗어난다.”

선과 악을 생각지 않으면, 자성이 요달된다. 자성이 요달되면, 선이나 악이라는 허망한 그림자에 꼬달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삼계를 벗어난 당처다. 알고 보면 삼계라는 것도 중생의 욕망의 불을 꺼트리 위해 집짓 빌려와 사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이라는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물론 본래면목을 밝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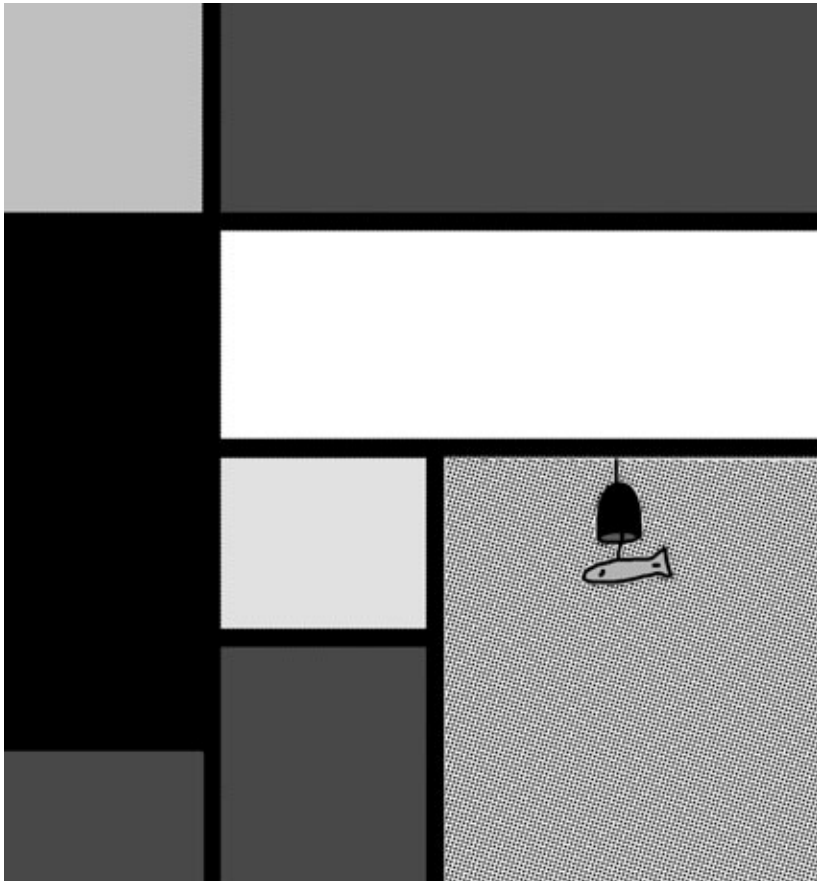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신상(信相)보살이 그날 밤 꿈에 금고(金鼓)를 보았다.

〈금광명경〉

꿈은 꿈이 아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왕사성에 살던 신상(信相)보살은 어느날 밤, 꿈을 꾸다. 꿈 속에서 금북(金鼓)을 본다. 이렇게 금북이 나오기에, 〈금광명경〉을 이렇듯 금고(金鼓)라고도 하는 것이다. 설명 보다는, 직접 읽어보는 것이 더 낫겠다.

“그 모양은 지극히 크고, 그 밝음이 두루 비추기를 마치 햇빛과 같았다. 다시 그 빛 속에는 사방세계의 끝이 없고 한량없는 유리좌(琉璃坐)에 앉아계시는 것이 보였다. 한량없는 백천의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부처님들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계셨다. 바라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당목(檀木)으로 금고를 쳐서 큰 소리가 나게 하였다. 그 소리는 ‘참회의 시’를 설하는 것이었다.”

꿈 속의 일이다. 생시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생시의 일이 아니라 해서 내팽개칠 수 없는 진실한 이야기가 있다. 금으로 만든 큰 북을 보았고, 그 금북으로부터 나오는 빛 속에서 부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빛이라는 것이 한 줄기로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는 그 빛의 줄기마다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유리좌에 앉아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시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보다 더욱더 생시와 같은 일은 한 바라문처럼 생긴 사람이 천 북소리에서 흘러나온 ‘참회의 시’이다. 잠들기 전, 신상보살은 ‘참회의 시’ 중에서 한 구절도 기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꿈속에서 듣고서는, 그 내용을 다 기억해 낼 수 없었다. 〈금광명경〉 참회품에 실린 이 계송은 매우 긴 장시(長詩)이다. 이 긴 시를 다 기억해 낸 것이다. 실제 우리들도 체험하지 않나. 대개의 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충격적인 내용은 기억할 수 있지 않나.

효봉 스님 역시 꿈 속에서 고려말의 고봉(高峰)스님이 설해주시는 계송을 받아 왔지 않나. 지금 〈효봉어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꿈이 언제나 허망한 것 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箏)의 소리

꿈에서 받은 ‘참회의 시’는 물론 꿈이 아니라 생시에 설법을 들은 것으로, 경전의 편집자는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금고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금구(金口)로부터 설해진 것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재미있지 않은가. 대승경전을 읽을 때 이 형식이 주는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재미는 반감될 것이다.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종도 마찬가지다. 소리가 난다. 북이나 종 뿐이던가. 소리에 신비한 힘이 있음은 예전부터 믿어오던 바이다. 다라니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기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금고경〉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을 견지한다. “이 큰 금고에서 나오는 묘한 소리는 삼세의 모든 고통을 다 소멸시켜 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뒤에서는 그 소 설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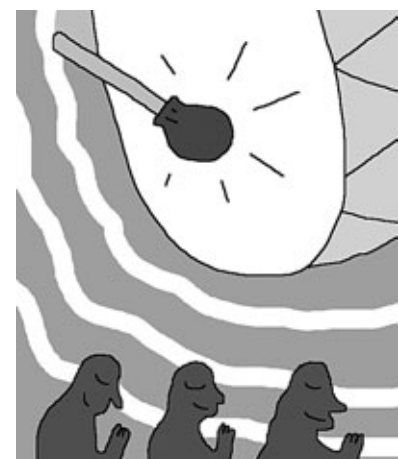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리가 ‘참회의 시’를 읽고 있으므로, 그 ‘참회의 시’에 따라서 참회할 때 모든 고통이 다 소멸된다고 하지만 말이다. 그 전에 먼저 소리 그 자체의 신비한 공능(功能)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소리에 힘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내 나름으로 답을 찾아본다면, 소리가 우리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대개 번뇌가 아니던가. 지금도 내 머리 속을 달리는 생각들, 그것들은 바로 번뇌 외에 무엇일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의 번뇌에 끊임없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특히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를 우리 안의 소리로부터 놓여나게 해준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에게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어 주며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제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 오전 5시 50분 KBS 1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 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인생의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분자님 연락바랍니다 ※ 제조원: 구암식품

☎ 농협: 227027-51-090791(예금주: 남궁성근) · 식품제조업: 대구 북제00619호

##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앰프 구성: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 1대 · 소형 미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 1대 · 사치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 문화 010-5335-2695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전화 (02)2697-9976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팩스 (02)2601-8284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외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중앙대, 육천범용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